기해년 동안거 결제 2000여 수좌 정진

"자기사 밝히는 데 최선을" 진제 스님 결제법어로 당부

불기2563년 기해년 동안거 결제에 따라 전국 선원에 수좌들이 방부를 들이고 화두 참구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1월 11일 동안거 결제에 앞서 대중의 수행을 독려하는 동안거 결제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해마다 반복되는 결제와 해제에 빠지지 않는 사부대중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사를 밝히는 데 있다"면서 "여러 대중은 법문을 잘 새겨듣고,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 데 근간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제 하루 전날인 11월 10일 저녁에는 전국 선원서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했다. 이후 11일부터 사찰별로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종정 · 방장 결제법어 A7면〉

윤호섭 기자

종평위원장에 도심 스님

2년 임기, 위원장 포함 10인 구성



정부와 지자체의 종교편향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외 종교 탄압,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했다. 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도심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임기는 2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종평위원장에 도심 스님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직 위원은 前위원장인 만당 스님을 비롯해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대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당연직 위원인 덕조 스님(사회부장), 가섭 스님(포교부장), 일감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윤호섭 기자

'대종사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 결과

총 20명 대종사 추천했으나
법계위원회서 8명 제외 논란
대종사 심의는 원로회의 몫
법계위 위법행위 비판 높아

승려복지제 본인부담금 도입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추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승려의 수행과 법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법안 내용상 하자가 아닌 법계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성토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5~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7회 정기회를 개원하고,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대두된 법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현행 승랍과 연령으로 정한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에 방장 ·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 원로의원 등 특정 직책 경력이나 안거성만 횟수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또한 대종사 특별전형과 관련해 법계위원회가 적격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법계위원회가 각 교구에서 추천한 20명의 대종사 후보자 중 8명을 제외하고, 12명만 추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법상 법계위원회는 종사 특별전형 심의 자격만 있을 뿐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회서는 법계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 스님은 "법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계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개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의 발언에 다른 종회의원들도 문제를 공감하면서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무엇보다 법계법 개정안에 담긴 법계위원회의 대종사 심의 권한은 법계위원들이 중앙종회의원들에게 요청해 마련된 것이어서 법계위를 향한 비판이 더 높아졌다.

한 종회의원스님은 "법계위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통과된 것처럼 행동한 것은 법계위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승려복지회 구성원 확대

승려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승려 개개인에게 본인기본부담금을 부과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대종사 법계 재적승의 당연직 총림 임회위원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총림법 개정안과 승려법의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 징계법 제정안은 대표발의자가 철회하면서 추후 보완해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맞게 포교 용어를 변경하고, 원활한 포교원 업무 처리를 위해 체계를 정비한 포교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산중총회서 방장후보로 선출된 현봉 스님의 방장 추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1월과 1977년 5월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1년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2안거 이상 성만했으며,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조계총림선원 유나 · 감원 · 한주 등을 역임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 추후 재논의

이어 지난 214회 임시회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이후 계속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철회했다. 총무원은 현재 전국 1000여 사찰에 설문지를 보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왕산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는 호성 스님이, 임기만료에 따른 소청심사위원장에는 동명 스님이 다시 선출됐다. 또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법계위원회가 제외한 8명의 스님들을 차기 회의에 올리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포함된 스님은 법인 스님, 자광 스님, 동광 스님, 청우 스님, 천진 스님, 혜거 스님, 정우 스님, 정광 스님, 보광 스님, 종성 스님, 선용 스님, 문인 스님 등 12명이다.

추가 접수된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림별 특성을 반영한 종헌종법 개정을 위해 11인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2020년 정기회까지이며,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7일 폐회했다.

조계종 '2040 비전' 여론조사 시작

불교사회硏, 2040조계종 비전연구 기초조사 돌입

대국민 외 승단 첫 설문조사
시대상 비롯해 불교내부 포함
100여개 문항으로 질문 구성

불교 미래를 밝히는 2040 조계종 종책 비전 및 과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인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6일 서울 전법회관에 위치한 백년대계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5개 교구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의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서는 출가자 감소와 승단 고령화, 승가공동체 위기란 지적 속에 불교의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조사로 4차 산업 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등 사회 현상과 연계된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이 함께 분석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3년에 한 차례씩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기반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승단을 대상으로 불교의 각 분야 인식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는 크게 △스님들이 생각하는 신도상 △미래사회종단과 사찰의 역할 △출가자 감소 극복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시대에 맞는 신행 · 계율 · 청규 · 수행 등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요 문항은 62문항으로 세부문항까지 포함해 총 100여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4차 산업 시대 AI설법과 로봇스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래 사회에 사찰의 구조가 예경 공간 외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등 일반사회에 대한 접점의 질문과 '출가 장려종책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연로한 스님의 예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불교 내부적인 질문이 함께 포함된다.

여론 조사는 승랍 10년 이상 스님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불교사회연구소는 응답률 등을 고려해 1000명 수준에서 표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결계포살법회에서 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백년대계본부에서는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불교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스님들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답변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질적 성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인선

11월 13일 회장 취임법회… 수석부회장 능인 스님

조직 일부 개편, 국제부 신설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임기 시작에 맞춰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수석부회장은 대구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이 맡았으며, 부회장에는 능인(의정부 석림사 주지) · 성본(무주 향산사 주지) · 광용(마포 성림사 회주) · 정명(가평 연화세계 주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집행부는 △총무부장 보련 스님 △기획실장 명법 스님(해인사 국일암 감원) △재무부장 지효 스님 △교육부장 정수 스님(의정부 정수선원 주지)이 임명됐다. 아울러 조직이 일부 개편되는 문화포교부장에는 상화 스님(서울 보현정사 주지), 사회복지부장에는 덕환 스님(인천 지선사 주지)이 내정됐다. 신설부서인 국제부장은 정혜 스님(고창 마사하 주지)이 맡는다. 이외에도 사서실장 겸 법룡사 주지는 혜연 스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은 수경 스님, 사찰음식연구소장은 선재 스님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각 부서 실무를 책임질 국장단은 총무국장 설해 스님, 기획국장 지일 스님, 재무국장 덕효 스님, 교육국장 유정 스님, 문화포교국장 무여 스님, 사회복지국장 수안 스님, 국제국장 시현 스님, 승가연구소 국장 정문 스님, 사찰음식연구소 국장 경운 스님, 법룡사 도감 중제 스님 · 법룡사 총무 지응 스님이 임명된다.

부회장을 비롯해 각 집행부 소임자 임명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봉행되는 제12대 회장 취임법회에서 진행된다. 다만 감사 선임과 집행부 조직 개편은 회칙에 따라 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윤호섭 기자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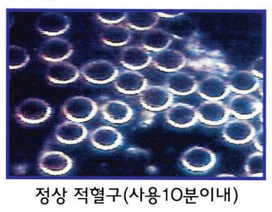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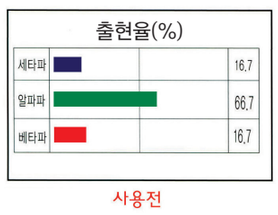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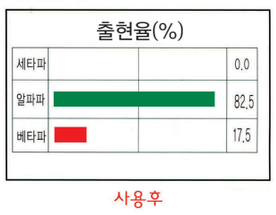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